



다시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※엠바고 :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 : 2023년 9월 9일(토)

## 윤석열 대통령, G20 정상회의 계기

### 방글라데시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

- 역동적인 신흥시장 방글라데시와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-
- 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향한 협력 관계 발전 모색 -

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현지시간 9/9, 토) 오후 「셰이크 하시나(Sheikh Hasina)」 방글라데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

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,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수교 이래 반세기에 걸쳐 양국이 무역, 투자, 인프라,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확대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, 수교 5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, 시장 경제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.

양 정상은 그간 한국 기업이 자무나 대교, 샤잘랄 국제공항, 국립대병원 등 방글라데시의 핵심 인프라 건설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.

다. 대통령은 방글라데시의 고도성장과 함께 건설 및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및 경험증진자금(EDPF)을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

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이 자동차,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면서,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이에 하시나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.

또한, 대통령은 방산, 원자력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나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. <끝>